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삶은 본성상 대화적이다. 산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철학자, 인문학자이며 비평가인 마하일 바흐친(1895-1975)이 한 말이다. 그는 뛰어난 도스토예프스키의 연구가이기도 하다. 산다는 것은 다른 아닌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 짧고 간결한 문장이 혼란스러움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일으킨다. 삶을 대화로 바라보는 이 시선은 우리가 사는 방식과는 얼마나 다르고 낯선 것인가? 그러면서 바흐친은 “존재한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대화적인 삶과 소통하는 관계는 바흐친의 사유체계를 이루는 핵심으로 그가 평생 동안 일관되게 추구한 가치다. 그런데 대화가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생각 때문에 바흐친은 정작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대화적’인 탄압을 받았다. 당시 스탈린 정권으로부터 반동으로 낙인찍혀서 순환이라는 긴 세월을 카치흐스탄에서 유형생활을 한 것이다. 앞선 데 묘진 역

## 삶이란 대화하는 것이다

으로 그 후에 다리까지 절단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대화, 이 말처럼 쉽게 쓰지만 실제 행하기 어려운 것도 정말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는 마치 힘없는 사람이 땀이 ‘뚰리고’ 아쉬운 상황에서 쓰는 수단처럼 여긴다. 그러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다. 강하고 힘든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대화 대신 먼저 큰소리를 치거나 우기고 억박지르는 것을 흔하게 경험한다. 이런 모습에 익숙한 탓에 삶은 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적지 않게 당혹스러움 속에서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큰 소리부터 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대화의 무능력이 정치판에만 한정된 현상은 결코 아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대화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대화니 소통이니 하는 것이 말 뿐이지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서부터 몸으로 배운다. 결국, 서로가 목청을 높여서 큰 소리를 내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하지만 사실 대화한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묻고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대화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먼저 귀를 열고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나’와 동등하게 말할 권리를 다른

사람 역시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를 연다는 것은 듣고 싶은 말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장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실렸다. 장에 자녀를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눈물로 간청하는 모습이었다. 이 부모들은 감히 대화는커녕 가는 곳마다 자신들을 스스로 죄인 취급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화를 거부당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가.

대화는 ‘나’와 타자 사이에 있는 차이를 논리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차이를 옳고 그름을 통해서 따질 때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폭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된다. 힘의 균형이 없는 곳에서 논리란 언제나 근본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위한 핑포에 지나지 않는다. 장에 자녀를 가진 부모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사화는 무서운 이기적 독백만이 있는 곳이다. 바흐친에 따르면 삶의 방식은 크게 대화와 독백으로 나누어진다. 독백은 아무리 대화처럼 위장하고 가면을 써도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관계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과연 대화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비위를 거스르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

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관계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억압과 분열, 고립으로 나가는 독백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대화의 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대화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 즉 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은 곧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며, 그것은 곧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저 혼자서 스스로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누구나 단 하루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으며 작은 어려움도 서로 돕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하나의 목소리는 아무 것도 증명시키지 않으며,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최소한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이다.

타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대화는 결코 완결되지 않는 과정이다. 끝없이 이어지고 새로워지면서 다성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진리를 독점하려는 폭력과 싸우는 것이다. 삶에 필요한 진리는 언제나 “대화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태어난다. 어느 때보다 긴 이번 명절 연휴는 오랜 동안 익숙해진 독백주의를 벗어나서 대화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다. 입보다 먼저 귀를 크게 여는 것이다.

법조칼럼



김 경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몇 달 동안 초임 민사재판장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소회를 일반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변론주의(주요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가 적용되는 민사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어떤 당사자들은 “판사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라고 말한다. 문제는 판사도 당사자들이 충분히 주장과 입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 주지 못한다면 판단하기가

## 초임 민사재판장의 고충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판사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명쾌한 판단을 하고 싶지만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자칫 한쪽 당사자로부터 불복요청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판사는 경기의 심판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귀담아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어떤 당사자는 향후 입증계획을 물으면 “이제 다 제출했는데 더 이상 무언을 더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민사재판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함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판사가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많은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판사가 기만 하듯 있기에는 무심해 보이는 것도 사리이다. 필자가 아직 경험이 적다 보니 어떤 경우에 보여 주세요”라고 말한다. 문제는 판사도 당사자들이 충분히 주장과 입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 주지 못한다면 판단하기가

에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말을 많이 듣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는 등 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판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당사자들에게 일생에 한번뿐인 재판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들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사건들의 진행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여러 사건을 빨리 진행하려다 보면 구술변론의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 미리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아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가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다른 사건들이 밀려다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세요”라고 권하게 된다.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오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셋째, 법대로 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법대로 해 달라. 승패가 어떻게 되더라도 끝까지 법대

로 하겠다”라고 한다. 당사자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재판까지 왔겠는가? 그러나 법대로 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다. 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 보다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 당사자 사이의 진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때로는 당사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할 것이다. 재판을 하다 보면 청구 금액에 비하여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사건이 있어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을 권하기도 하는데 감정적 문제로 무조건 법대로 하겠다는 당사자들도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처음 민사재판장을 맡으면서 느낀 이런 저런 생각을 쓰다 보니 새삼 필자의 부족한 면을 느끼게 된다. 이 글은 필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많은 당사자에게 자기 고백과도 같은 글 정도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좋은 결론, 합리적이고 명쾌한 판결을 내리고 싶지만 아직 재판 진행에서도,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도 미숙함이 많은 판사의 죄송한 마음을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

기 고



변 길 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미래의 디자인을 주제로 하는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했다. 지금까지 비엔날레판에서 홀로 산업디자인 관련 전시만 했었는데,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이 특별전을 자청하였다. ‘4차 미디어아트 : 포스트 휴먼’전이 그것이다. 광주는 유네스코로부터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그동안 미디어아트 사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화도시가 되어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시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시민이자 이번 특별전의 전시기획자로서 미디어아트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해보고자 한다. 미디어아트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왔다. 초기에는 사진, 전화, 영화 등의 발명

## 미디어아트의 개념과 4차 미디어아트

이후 이런 신기술들을 활용하는 예술들을 가리켰다. 우리가 매스 미디어(mass media)라고 할 때의 그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작품을 말한다. 대략 1960년대 플럭서스 유파에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플럭서스 유파는 1인 제작, 1인 소유의 전통적 예술개념을 거부했다. 그들은 과감히 자기들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들로부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술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요즘 비엔날레에서 흔히 보는 설치작품, 퍼포먼스, 영상작품들은 그들의 혁명적 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요셉 보이스, 백남준 등이 유명하다. 이것이 미디어아트의 시작이었다. 그 유파 중 백남준은 캔버스 대신 어느 것을 소재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는 텔레비전과 퍼포먼스를 선택했다. 음악을 전공했던 백남준은 텔레비전이 훌륭한 미술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알아봤고, 소위 비디오아트라는 것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는 오늘날 미디어아트의 뿌리라고 할다. 그를 좇아 수많은 작가들이 영상물 소재로 하는 미디어 아트를 하였으며 그것들이 대략 1970~90년대에는 비디오아트라는 장르로 불렸다. 비디오아트는 서사나 인간의 본질 탐구보다는 정보의 확산과 설치에 주목하였다. 이것이 2차 미

디어아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골목마다 있던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소위 디지털아트, 뉴미디어아트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 시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조작하고 예술작품을 만든 이들이 세 번째 미디어아트의 주역들이다. 물론 칼로 무 자르듯이 그 시기와 작가들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편이상 구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 처음 시작은 작은 물결이어서 발목만 적실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지직거리는 영상, 정보만 담은 영상을 뛰어넘는 기술과 예술성의 진화가 있었다. 서양에서는 빌 비올라가 동양에서는 이이남이 대표적이다. 2차 미디어아트는 미래를 내다 본 비디오 기술의 도입이었고, 3차 미디어아트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대형 스크린 사용, 영화적 기법 도입 등 기술의 발달에 더해 비디오아트가 구현하지 못한 서사와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광주시립미술관 특별전에서 보여준 4차 미디어아트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첫째는 네 번째 단계의 미디어아트가 된 것이고, 둘째는 4차산업과 연관된 미디어아트라는 것이다. 4차산업의

주요 키워드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은 젊은 공학자와 예술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미디어 아트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특별전에서도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이용한 작품이 주목을 이루었는데, 과학의 장점이 인간이 만드는 예술과 결합되어 또 다른 아름다운과 재미를 선사하였다. 앞으로 기술의 진보를 통한 4차 산업과 미디어아트는 더욱 결합되어 새롭고 멋진 미디어아트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작품과 관객과의 상호작용, 작품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인 참여 등은 4차 미디어아트의 주요 특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미디어아트란 “작가와 관객의 동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매체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에서 최초로 “4차 미디어아트”라는 개념을 선연적으로 제시하였다. 전국의 미술전문가들도 부러워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아트의 모습을 보여 준국의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 광주시립미술관의 ‘4차 미디어아트 : 포스트휴먼’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차 미디어아트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社 說

## 공직사회 명절 금품상납 근절 바람 반갑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금품 상납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김영란법 개정의 범위와 필요성 없이 없게iro 했다가 논의를 거친 끝에 상납액을 크게 줄여 정성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지자체는 직원들이 개인당 1~2만 원 정도를 각출해 과장에게 정성을 표했지만 올해에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상납 관행을 없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 직원들이 출장비를 모아 조성한 권 등을 가진 상급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그동안 직원 출장비 등을 모아 각 부서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부서장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가량을 상납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등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맞아 일부 지자체 하급공

무원들이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금품 상납 관행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한다. 전남의 한 지자체는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에게 금품 상납을 완전히 없게iro 했다가 논의를 거친 끝에 상납액을 크게 줄여 정성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지자체는 직원들이 개인당 1~2만 원 정도를 각출해 과장에게 정성을 표했지만 올해에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상납 관행을 없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 직원들이 출장비를 모아 조성한 부서 운영비는 그것이 모든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부서장 개인에게 전달된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직원들이 부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출장비 일수나 인원을 불풀리는 각종 부작용까지 발생하는데, 이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서원들의 출장비를 심사할만 오도다가 명절에 상납하는 관행은 이 참에 아예 근절돼야 한다.

## 추석 연휴 AI 방역 긴장 늦추지 말아야

올해는 유난히 가족 질병이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6월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419건이나 발생했다. 구제역도 지난 2월 3개 도 9개 농장에서 발병했다. 여기에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겹쳐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을 힘들게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말에는 경북 영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다. 다행히 국립축산식품부의 유전자 정밀 분석 결과 해당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야생조류에서 흔히 검출되며, 증상과 전염성이 약하고 가금류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역대 가장 긴 올 추석 연휴 기간 37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급증하는 기

간에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하면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겨울 철새들이 이달 초부터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가금농가에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했고 환경부도 전국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AI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야생조류에서 흔히 검출되며, 증상과 전염성이 약하고 가금류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역대 가장 긴 올 추석 연휴 기간 370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급증하는 기

無 等 鼓

“작가에게 절실하다 하여 특정 인물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독자가 그 사람의 입장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난 2014년 은희경 작가가 신작 소설집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를 발간했을 당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긴 제목은 일본 시인 사이토 마리코의 ‘눈보라’라는 시에서 따왔다. 비슷하게 보이는 눈송이 하나도 각기 다른 개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사

설집을 펴냈다. 책 제목은 여러 단편 가운데 한 작품인 ‘모르는 사람’을 복수화해 붙인 것이다. ‘모르는’이라는 말은 그동안 작가가 펼쳐왔던 소설세계를 집약한다. 깊은 사유와 종교를 기원으로 한 작품을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란 평이 뒤따랐다.

“이번 소설은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남독할 수 없는 인생의 원리, 안다고 믿었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를

관계와 거리

번역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했다. 다른 문화권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필

연적으로 따리오는 문제가 바로 낱말이다. 완벽한 이해가 아닌 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 말이다. 사람과의 소통 또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긴 연휴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들은 가까운 부모자식, 친지를 비롯해 동창, 선후배 등 다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관계만큼이나 ‘거리’ 또한 제각기 다르다. 연휴를 무탈하게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러면서 공간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지.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p>光 州 日 報</p> <p>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p>	
<p>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편번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p> <p>편집부 220-0649</p> <p>정지부 220-0632</p> <p>사회부 220-0642</p> <p>사 회 2부 220-0652</p>	<p>경제부 220-0663 (FAX 222-4938)</p> <p>문화부 220-0661</p> <p>문화미디어부 220-0664</p> <p>체육부 220-0697</p> <p>사 진 부 220-0693</p>
<p>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p> <p>기획관리국 227-9600</p> <p>(FAX 227-9500)</p> <p>다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FAX 02-773-9335))</p>	<p>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p> <p>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p> <p>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